



“예술의 섬 제주, 예술가 존재 가치도 높여야”

제주 문화계 이 사람 (14) 김해곤 작가

그는 2004년 제주 바람을 예술적 상상력으로 가꾼 바람예술축제를 기획했다. 2012년부터 3년 동안은 서귀포시 원도심 일대를 지붕없는 미술관으로 조성한 마을미술프로젝트를 벌였다. 2016년엔 프랑스 노장 쉬르 마르시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제주에 왔을 땐 설치미술, 공공미술, 아트페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이 주를 이루었죠. 지금은 제주형 아트페어가 진행되고 갤러리가 여기저기 생겨나는 등 제주 미술계가 르네상스 같은 전성기의 시작점에 놓인 듯 합니다. 특히 제주를 찬양하는 이주 작가들이

많아졌습니다. 질적·양적 팽창과 더불어 또 한번 제주미술 생태계가 변화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도남동에서 갤러리비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해곤 작가. 미술을 하는 제주출신 아내의 고향에 동지를 둔지 어느덧 15년이 됐다. 화가이면서 설치미술가, 미술기획자로 활동해온 그는 제주에서 여러차례 ‘처음’을 만들었다.

미술관을 벗어난 공공장소에서 펼친 바람예술축제는 설치미술, 공공미술의 시원으로 꼽힌다. 2005년 송악산 동굴진지 13곳을 미술관으로 바꿔놓은 바람예술축제는 보름 동안 5만명 넘는

화가·설치미술가·문화기획자 바람예술축제·공공미술 작업한발 앞선 서귀포관광광장 재생 “머문 곳 살리고 쫓겨나는 예술인 지속성·열정에 문화도시 성패”

관람객이 찾았다. 전쟁의 아픔을 안은 역사 현장을 예술로 조명한 이 기획전으로 그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서귀포시 원도심 명소가 된 서귀포관광광장은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발견한 공간이다. 한발 앞서 유희공간을 문화적으로 재생하고 주민들의 감성을 새롭게 디자인한 사례다.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미술관 한

해 입장객이 대한민국 인구수에 가까운 5000만명이 넘습니다. 예술가 한 사람, 뛰어난 예술 작품 하나가 도시를 먹여 살리는 일을 보게 됩니다. 제주는 어떤가요. 예술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가 예술가의 존재와 가치는 안중에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행사 하나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 기금 지원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보는 문화 행정은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2009년 이래 10년째 문화재생 사업을 이어오는 부산감천문화마을 예술감독으로 작년과 올해 참여해온 그는 지속성과 열정이 문화도시의 성패를 가른다고 덧붙였다. 특히 머문 자리를 살려놓는 예술가들이지만 끝내 그곳을 떠나야 하는 일에 대해선 안타



바람예술축제, 서귀포 마을미술프로젝트 등을 통해 한발 앞선 기획력을 보여온 김해곤 작가는 예술가가 예술가답게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까움을 드러냈다.

“예술은 100년 후, 200년 후까지 공감할 수 있는 자원을 남기는 일입니다. 수많은 축제장의 천막을 걷어내면 콘텐츠의 민낯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제주 예술에는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문게 됩니다. 제주에 사는 모든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제주 예술의 경쟁력이 그곳에서 키워질 수 있습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제7회 제주4·3평화문학상 논픽션 신설

시·소설 등 3개 부문 늘어
내년 1월 20일까지 접수

제주4·3평화문학상에 논픽션 부문이 신설됐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제7회 제주4·3평화문학상 공모 내용을 발표했다.

제주4·3평화문학상은 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아픈 상처를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켜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보편적 가치를 일깨우는 수준 높은 문학작품 창작을 이길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 3월 제정했고 2015년부터 제주4·3평화재단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매년 시와 소설 부문에서 당선작을 배출하고 역량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며 이름을 알려왔다.

제7회 제주4·3평화문학상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저작권 귀속 기간, 공모분야, 시상금 규모 등이 달라졌다. 공모 부문은 기존 시, 소설에 이어 논픽션 장르가 추가됐다. 4·3평화문학상 수상자는 장르에 구별 없이 이중 시상이 금지된다. 발간 등 당선작 활용 관련 업무는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시, 소설, 논픽션 공모 주제는 ‘4·3의 진실,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다.

시는 1인당 10편, 소설은 200자 원고지 800매 이상, 논픽션은 200자 원고지 400매 이상의 분량이어야 한다. 미발표한 글 창작품으로 2019년 1월 20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응모작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각 장르별 당선작 1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상금은 소설 5000만원, 시 2000만원, 논픽션 2000만원으로 총 9000만원 규모다. 결과 발표와 시상식은 내년 4월 중 개최할 계획이고 당선작품은 공식 출판물을 통해 독자들에게 선보인다. 문의 064)723-4306. 진선희기자

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다채

어린이 책 나눔터·독서퀴즈·매직 북 매직콘서트 등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제주도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이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를 운영한다.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은 박현숙 작가 초청 강연회 ‘작가와 만남’과 ‘수상한 아파트’, ‘아미동 아이들’ 등 다수의 작품을 소개하는 ‘도서 전시회’를 운영한다. 또 청소년들이 선정한 ‘청소년 추천 도서 전시’와 신규 회원들에게 독서기록장을 증정하는 ‘첫 대출과 행운 잡기’도 진행한다.

한수물도서관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별관 드림누리에서 동화책을 주제로 스토리텔링 미술, 공중부양 미술, 관객참여 미술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매직북 매직콘서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공연한다. 이날 지난 1년간 우

수 다독자를 선정해 시상하며 한림 지역 주민이 기증한 도서를 무료로 배부하는 나눔 행사를 별관에서 진행한다.

동녘도서관은 박재형 아동문학가를 초청해 세화초 4·6학년을 대상으로 ‘다량쉬오름의 슬픈 노래’를 통해 보는 구좌읍 4·3 이야기에 대한 강연이 진행된다. 또 해원스님의 지도로 다경선원(구좌읍 세화리)에서 다도와 다식을 체험하고 책을 함께 즐기는 ‘다경선원에서 즐기는 다도·다식 체험 책 한 권의 여유’와 기증받은 어린이도서를 무료로 배부하는 ‘어린이 책 나눔터’, 9월 독서의 달 기간 동안 도서대출자에게 자석 책갈피를 배부하는 ‘동녘도서관 로고 자석 책갈피 배부’를 진행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가을 문턱에 듣는 추억의 팝·영화음악

한라원드앙상블 팝스 콘서트
빅밴드 블랙스톤 첫머리 장식

저녁 바람이 달라지는 계절에 찾아드는 공연이 있다. 시민밴드 한라원드앙상블(사진, 단장 정호규)의 추억의 팝스콘서트다.

1993년 탄생해 ‘악기 하나쯤 다룰 줄 아는 문화 시민’의 존재를 증거해온 한라원드앙상블의 팝스콘서트는 공연장 문턱을 낮췄던 프로그램 중 하나다. 관악으로 귀에 익은 곡들을 연주하

며 “음악이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구나”란 걸 알려왔다.

이달 8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스물 세번째 팝스콘서트는 한라원드앙상블 빅밴드 블랙스톤(리더 정경조)의 공연으로 막이 열린다. ‘샌트 루이스 블루스’, ‘A 열차를 타라’, ‘진주 목걸이’, ‘인더무드’가 정중들과 만난다. 김승택·김우신씨가 번갈아 지휘봉을 잡아 전체 단원이 출연하는 한라원드앙상블 무대에서는 일본의 대표 싱어송라이터 우타다 히카루의 대표곡인 ‘첫사랑’과 ‘당신에



게 중독된’을 시작으로 ‘마이 웨이’, ‘영혼 열차’, ‘시네마 파라다이스’, ‘캐러비안의 해적’, ‘사운드 오브 뮤직’ 등이 연주된다.

대극장 공연에 앞서 오후 7시에는

문예회관 로비에서 로비콘서트가 펼쳐진다. 한라원드 목관앙상블이 영화 ‘시스터 액트’, ‘컨스피러시’에 들었던 주제를 준비했다. 문의 064)751-1155. 진선희기자

제주문화원형 스토리공모전
대상 이광진·우수상 홍정호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실시한 2018제주문화원형 스토리공모전에서 제주 이광

진씨의 ‘동동 동자석’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제주 홍정호씨의 ‘돌하르방과 오백장군’에게 돌아갔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도내 6편, 도외 6편 등 12편이 접수됐다. 대

상작인 ‘동동 동자석’은 제주의 산물인 묘를 두른 산담을 배경으로 그 안의 동자석과 돌물들이 만드는 이야기를 담았다.

대상은 500만원, 우수상 250만원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이들 수상작은 다

음해 창작지원사업과 연계해 실제 공예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다. 전년도 스토리공모전 대상 수상작은 2018공연을 창작지원사업 단체가 선정됨에 따라 조만간 무대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붓으로 그려내는 하모니
제주지원문인화회 전시

제주지원문인화회(회장 박승국)가 일곱번째 회원전을 연다.

문인화가 좌경신씨가 지도를 맡고 있는 이 단체는 이번엔 ‘필(筆) 하모니’란 이름을 달고 여름날 뜨거웠던 날씨를 달은 듯한 묵향의 열정을 드러내 보인다. 회원 40여명이 참여해 가을을 예감하는 풍경에서 군자의 향기가 지 않는다.

전시는 이달 8일부터 12일까지 문예회관 3전시실, 문의 010-3694-1428.

진선희기자



강시호의 ‘군사향’.

해외여행의 선두그룹

GAJA TOUR

(주)부민가자투어

KATA 3억5천보증보험

당신의 소중한 여행이 시작되는 곳!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경영대상 수상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 사업체 | KATA 회원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정회원

국내외항공권 / 허니문 / 단체여행 / 패키지여행 / 골프투어 / 전세버스대절 / 중국비자대행

2018

(주)부민가자투어

☎ 748-3131

일본여행

오사카 관광 9월 15일, 10월 6일

1인당

899,000원 준특급

799,000원 비즈니스급

- ▶ 드넓은 잔디밭에 사슴을 방목해 놓은 세계문화유산 나라공원 및 고도관광
- ▶ 세계문화유산 오사카성 관광
- ▶ 젊은이들의 유행, 상업들의 변화가 신사이바시
- ▶ 온존옥 체험

북알프스 관광 9월 15일, 10월 6일

1인당 **1,250,000원**

- ▶ 일본 최고의 관광지 알펜루트
- ▶ 장엄하고 웅장한 북알프스 산의 대자연에 케이빙, 가자, 버스 관광하는 세계적인 관광코스
- ▶ 2,450m 무로도고원 정상에서 만년설 체험
- ▶ 일본의 3대성 나고야성 관광
- ▶ 온존옥 2박

서안여행

9월 23일

장가계 **1,369,000원**

9월 16일, 10월 7일

장가계 **1,250,000원**

태항산 **1,099,000원**

태국여행

태국 / 방콕 / 파타야

9월 매일 출발

699,000원

9월 21일 22일 **899,000원**

추석특집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4박 5일 899,000원**

싱가포르/세토사섬/쿠알라룸프 **9월 22일 1,090,000원**

4박 5일

3박 5일 9월 24일 출발 999,000원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호텔, 차량, 식사, 입장료, 여행자보험, 가이드 **공통 불포함사항** 개인비용 및 음션관광, 부분별 기사/가이드팁(30~50%), 부가세V.A.T 별도